국산 녹차, '농약잔류 문제없어'

농관원, 유통 국내산 녹차 원료 · 제품 101건 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녹차 원료 및 제품은 잔류농약으로부터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최근 녹차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8월 10~24일까지 녹차 주산지인 전남 · 경남 ·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녹차 원료 및 제품 가운데 101점을 수거해 150개 농약성분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또 지난 2002~2006년까지 매년 국내산 녹차 124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모두 '적합' 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럼에도 금번 잔류농약 논란을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녹차 생산 ·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 농관원 · 지방자치단체 · 농협중앙회 · 차생산자연합회 등 녹차관련기관 · 단체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차 안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팀은 앞으로 생산 및 유통관리, 안전교육, 소비촉진 등 4개반으로 구성되어 △주산지 지자체에 안전성 관리 도우미센터를 설치하고 △녹차 농약안전 지침서 제작 · 농가에 배포하며 △재배농가들에 대한 농약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농약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녹차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7일 농관원은 주산지인 보성군 및 하동군과 「녹차 안전성 업무협약(MOU)」을 체결, 녹차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 '우리농업 활력 축전' 성료

9.12일부터 4일간, 대강당 및 잔디밭 광장서

농촌 현장에서 추진한 농촌지도 핵심성과 전시를 농업인과 농촌지도공무원, 그리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로 마련한 「2007우리농업 활력 축전」이 성료됐다. 지난 9월12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박해상 농림부차관,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인단체장, 농과대학장, 농업인과 시군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농촌현장의 주역인 농업기술센터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전시(9월12일~15일)된다.

농산물 전시장은 많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동부하이텍,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 유통체계화에 앞장, GAP인증도

동부하이텍(대표 차동천)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제20호)에 이어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 9월 14일 제38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동부하이텍은 앞으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등에 대한 인증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민간 인증기관 지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인증품을 계측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엄격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를 수행할 동부하이텍의 「동부친환경농업센터」는 사내 농업전문 인력과 사외 각계각층의 전문인사 등 농업 분야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충분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및 학계, 생산자단체, 농업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업무의 방향과 인증심사 등 주요 사안을 심의 · 결정하며 IOIA(국제유기인증심사원) 및 친환경인증기관협의회 인증심사원 연수 등을 이수한 전문인증심사원들로 구성된 인증심사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동부하이텍 동부친환경농업센터의 인증사무국장인 명을재 박사는 "동부하이텍은 우수한 전문인력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한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수농산물인증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공신력 높은 민간인증기관으로 발전, 인증농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하이텍은 앞으로도 농산물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영농기술서비스를 통해 농업인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 충분했고, 특히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코너에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운동장 한 켠에 마련된 먹을거리장터에는 가족과 함께 한 손님들의 정겨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둘째 날에는 라디오 공개방송도 있어 참가한 4-H회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신젠타, 「그라목손 출시 30주년기념」 사은대잔치 당첨자 발표

신젠타 코리아㈜(대표이사 스티븐 호킨스)가 실시한 「그라목손 출시 30주년 기념」 사은대잔치가 당첨자를 각각 발표하고 성료됐다.

그라목손 출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 해 온 이번 행사에 대해 신젠타코리아측은 "새로워진 제품만큼이나 농업인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의 퀴즈 응모자 중 신길주,

최종옥, 박한규씨를 포함한 30명에게는 스팀청소기를, 차성만씨를 비롯한 100명 모두에게는 그릇 세트를 각각 전달했다〈문의 : 080-900-1114〉.

경농, 초기 뿌리혹병 방제에 「미리카트」적극 추천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최근 배추, 무 등 십자화과 채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뿌리혹병(무사마귀병)에 대한 초기방제 약제로 「미리카트」액상수화제를 추천하고 적극 방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로 채소 및 과수의 역병 · 노균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원예용 살균제인 「미리카트」는 배추의 뿌리혹병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배추 정식전날 400배 희석액을 육모포트에 관주 또는 뿌리 침지처리하거나 정식시 1000배로 희석하여 토양관주하면 정식초기에 감염되는 뿌리혹병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의 토양혼화처리제와 체계처리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배추생육기(본답)에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2000배로 살포하면 노균병 방제에도 효과적이다〈제품상담 전화 080-900-0671〉.

인 사

■ **(주)동방아그로** 〈전보〉△영업본부장 임필훈 영업전무보 △영업팀장 김영돈 업무상무보 △개발마케팅본부장 문성철 업무상무보 △바이오사업본부장 염병완 업무이사 △마케팅팀장 김원배 이사보 △마케팅팀 제양호 이사보 △개발팀 천광필 부장 △충북지점장 이성현 차장 △대전지점장 겸 예산지점장 김홍기 차장 △기술연구소장 한병수 차장 △품질관리팀장 전병구 차장 △생산2팀 입분제파트장 강성구 차장 △생산1팀장 겸 설비관리파트장 이상철 차장 △생산1팀 유액제파트장 윤영찬 차장